

2014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

메시지 14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 1:1, 3, 14, 16-18, 29, 32, 42, 51

- I.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문이며 이 서문의 주요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분은 비밀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이고 설명이며 표현이다—요 1:1.
- A.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위대한 ‘ 나는 이다’ , 곧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시다—출 3:14-15; 요 8:24, 28, 58; 히 7:3.
 - B. 요한복음 1장은 영원의 두 부분과 시간의 다리에서 창조와 육체되심과 구속과 기름바름과 건축이라는 우주의 역사 안에 있는 다섯 가지 위대한 사건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비교 시 90:1-2.
 - 1. 요한복음 전체의 머릿말인 요한복음 1 장은 영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 여행하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원 미래에 새 예루살렘이 되시는 역사에 대한 요약이다 —요 1:1, 51.
 - 2. 요한복음 1 장은 영원한 말씀께서 그분의 창조의 일과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시간의 다리를 건너시는 그분의 여행을 결정화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은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시기 위해 기름바르고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는 영이 되시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인 궁극적인 베델이 되기 위해 그분의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신부와 완전히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기 위한 것이다.
 - C. 이러한 다섯 가지 우주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1. 창조에 있어서의 창조자, 2. 육체되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람, 3. 구속에 있어서의 어린양, 4. 변화에 있어서의 기름 바르는 영, 5.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땅을 하늘에 연결하는 사다리로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며 표현하신다—비교 요 1:1; 엡 6:17; 요 6:63.
- II.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신다—요 1:3.
- A.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시 19:1-3.
 - B. “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롬 1:20.
 - C. 사도행전 14 장 15 절부터 17 절까지와 17 장 24 절부터 29 절에서 언급된 것은 그리스도의 창조하심을 계시하는 것과 똑같은 목적을 위해 이바지한다—비교 히 11:3; 1:2; 학 2:7.
- III.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그분의 육체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신다—요 1:14.

- A. 말씀은 육체되심에 의해서 다만 하나님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오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은혜와 실재가 충만한 장막이 되셨다.
 - 1.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공급한다—요 1:17.
 - 2.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요 1:16.
- B. 그분의 육체 되심에 있어서 그분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되셨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분으로 만들었다.
- C. 그분은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시고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킨 하나님-사람이 되셨다.
- D. 하나님의 독생자의 육체되심은 또한 하나님을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재 안에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요 1:18.
 - 1.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시고 설명되시고 정의되신 하나님이다.
 - 2. 생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분배되신 하나님이다.
 - 3. 빛은 사람이 빛비춤을 받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추시는 하나님이다.
 - 4.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람이 누린 하나님이다.
 - 5. 실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실재화되신 하나님이다.

IV.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신다—요 1:29, 36.

- A.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세상의 구속을 위해 어린양이 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따른 절차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B. 하나님의 어린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구약의 모든 제물들의 성취이신 육체 안에 계시는 말씀을 상징한다.
 - 1. 그리스도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의 실재이다.
 - 2. 모든 제물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가지며 우리는 또한 이 구속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V.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유기적인 하나님의 집(벤엘-요 1:51)의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을 돌들(요 1:32-42)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름바르는 영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신다.

- A.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고 기름 바르시며 변화시키는 영(고전 15:45)이 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의한 그분의 경륜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수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신다.
- B. 우리는 우리의 일상 생활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기름 바르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요일 2:20, 27.
 - 1.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분으로서 기름바르는 이와 기름부음 자체가 되셨다.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서 사는 것은 기름부음을 반대하는 것이다(‘적’은 ‘반대하는’, ‘대신하는’,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요일 2:18, 22; 4:3; 요이 7.
 - 2.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다.
 - 3.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특성에 속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 자신을 대체하도록 허락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원칙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비교 빌 1:21; 4:4-9.

4.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서 일상 생활을 사는 것, 곧 문화와 종교와 윤리와 타고난 관념들이 내적인 기름 바름이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것은 기름바름을 반대하는 것, 곧 우리 속에서의 삼일 하나님의 움직임과 일함과 적심을 반대하는 것이다.
 5.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우리는 우리 속에서의 삼일 하나님의 움직임과 일하심과 적심이신 기름 바름 안에서, 기름 바름과 함께, 기름 바름을 통하여, 기름 바름에 의하여 살고 행하기 원합니다.”
- C. 베드로가 회심할 때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돌-요 1:42)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주님은 자신이 반석(돌)이시라는 것을 더 계시해 주셨다(마 16:16-18). 이 두 번의 사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들이라는 것에 대한 인상을 받았다(벧전 2:4-8).
- D. 비둘기, 곧 그 영은 창조된 사람을 거둬나게 하고 타고난 사람을 기름바르고 변화시키며 변화된 사람을 하나되게 한다.

VI.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하늘(곧, 하나님)을 땅(곧, 사람)에게 이끌어 오고 땅(곧, 사람)을 하늘(곧,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다리가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신다—요 1:51; 창 28:11-22.

- A. 그리스도께서는 베엘에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되심에 있어서 하늘을 땅으로 이끌어 오시고 땅을 하늘과 연결하여 이 둘을 영원토록 하나로 만드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분의 구속받고 변화된 선민들로 구성된 집을 가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망하시는 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B. 그리스도는 야곱이 베엘, 곧 하나님의 집에서 본 사다리의 실재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꿈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다—창 28:12; 요 1:51.
1.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인(엡 2:22) 우리의 거둬난 영은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지신 땅 위에 있는 기초이다(딤후 4:22).
 2.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거처, 곧 하늘의 문인 베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이끌어 오는 사다리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3.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건축, 곧 베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며 이 사다리의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다.
- C.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이 견고히 건축될 필요가 있다. 이 건축물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발을 내딛기 위한 돌, 즉 디딤돌이며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것이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의 영원한 연합일 것이다. ... 이 건축으로 야곱의 꿈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의 다리는 끝나고 축복된 미래의 영원으로 안내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건축물을 위해 하야 하며 반드시 이러한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영문판, 65 쪽).